

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번역 편이 분석*

장 경 호** · 한 진 수***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금융 이해력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번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문항을 용어와 제도의 차이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번역 편이는 대부분 용어 선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약어로 표현된 것을 번역하거나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제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용어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제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답률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에서 문항 개발자는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비교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문항의 경우에 매우 신중하게 금융 이해력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금융 이해력, 번역 편이, TFL, 경제 교육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1년 3월 7일 일본 실천여자 대학(Jissen Women's University)에서 개최된 일본경제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한 논문 중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통하여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에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 제1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kjang@inha.ac.kr).

*** 교신저자,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jshahn@ginue.ac.kr).

I. 서론

본 연구는 금융 이해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번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경제교육협회(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이하 CEE)가 개발한 금융 이해력 측정 도구(Test of Financial Literacy, 이하 TFL)¹⁾를 번역한 후 전국에 걸쳐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미국의 금융 이해력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금융 이해력 번역 과정에서의 편이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Hahn & Jang(2012)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Walstad *et al.*(2010)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ET(Basic Economics Test, 3판)를 2개의 형태로 번역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형태의 시험지는 직역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형태의 시험지는 의역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동질적인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였을 때 번역에 따라 경제 이해력의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번역 편이(translation bias)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금융 이해력 측정 도구로 채택한 TFL을 이용한 연구로는 Happ *et al.*(2022), Kraitzek *et al.*(2022), 한진수·장경호(2022) 등을 들 수 있다. Happ *et al.*(2022)은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독일 대학생이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모두 미국의 영어 문항을 한국어와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지만, 번역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편이까지는 분석하지 못했다. Kraitzek *et al.*(2022)은 미국과 독일의 금융 이해력에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Hahn & Jang(2012)이 제기한 번역 편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수·장경호(2022)는 금융 이해력의 국제 비교보다는 금융 이해력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도 개인 및 가족 특성,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학업 특성, 근로 경험 등 경제적 특성, 금융 행위 특성 등의 요인이 금융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는 있으나 번역 편이로 인해 금융 이해력을 과소 또는 과대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Walstad & Rebeck(2016, 2017)을 참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hn & Jang(2012)의 연구를 확장하여 대학생의 경우에도 번역 편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번역 과정에서 그 편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hn & Jang(2012)과 같이 의도적으로 2개 형태의 문항을 이용하여 번역 편이를 측정하기보다는 금융 이해력의 국제 비교를 위해 번역에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번역 편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분석 대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금융 이해력 문항에 대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이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은 결론을 도출한다.

II.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0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설문 조사와 금융 이해력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482명(47.9%), 여학생 524명(52.1%)으로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chi^2_{(1)} = 1.8$, p 값 = 0.185), 대학교 소재지별로도 수도권 475명(47.2%), 비수도권 531명(52.8%)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chi^2_{(1)} = 3.1$, p 값 = 0.077). 설문 조사에는 이외에도 개인 및 가족 특성,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학업 특성, 근로 경험 등 경제적 특성, 경제 미디어 접촉 빈도 등 금융 행위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 특징을 표로 제시하지는 않는다.²⁾ 한편, 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를 위해 미국 자료는 Walstad & Rebeck(2016)의 Table 4에 제시된 통계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금융 이해력 측정 도구인 TFL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 1>과 같이 수입, 구매, 저축, 신용, 금융 투자, 보험 등 6개의 영역과 지식·이해, 응용 등 2개의 인지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들 특성에 대해서는 장경호(2021), 한진수·장경호(2022)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 TFL 문항의 구성

(단위: 개)

영역	측정 내용	지식·이해	응용	소계
수입	직업, 진학, 임금, 연금, 소득세	2	5	7
구매	구입, 소비, 할부, 소비자 보호	1	5	6
저축	충동 구매, 인플레이션, 예금, 연금	1	4	5
신용	신용 카드, 대출 담보, 할부, 신용 평가, 신용 점수, 신용 상담 서비스, 파산, 이자율	5	5	10
금융 투자	금융 세제, 주식, 채권, 분산 투자, 증권 감독	3	5	8
보험	보험, 보증 기간, 다양한 보험(자동차 보험 등)	3	6	9
소계		15	30	45

출처: Walstad & Rebeck(2017)의 Table 1을 참조하여 작성함(한진수·장경호, 2022, 재인용).

한국과 미국의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에 비해 높은 문항이 40개(88.9%)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국의 금융 이해력이 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에 비해 30%p 이상 높은 문항이 4개(8.9%)인 반면 미국의 정답률이 한국에 비해 30%p 높은 문항도 예외적으로 1개(2.2%)가 있어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한국과 미국의 정답률 차 분포

(단위: 개, %)

정답률 차		문항 수	비율
한국의 정답률이 높은 문항	30%p 이상	4	8.9
	20%p 이상 ~ 30%p 미만	7	15.6
	10%p 이상 ~ 20%p 미만	9	20.0
	10%p 미만	20	44.4
미국의 정답률이 높은 문항	10%p 이상 ~ 20%p 미만	4	8.9
	30%p 이상	1	2.2
소계		45	100.0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정답률 비교 결과를 토대로 우선, 정답률의 차가 큰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얼마의 차가 큰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30%p 이상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정

답률이 높은 문항의 경우에는 정답률의 차가 위에서 기준으로 삼은 30%p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답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문항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셋째, 정답률이 오답지의 응답률보다 낮은 문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문항의 경우 난도가 높은 문항일 가능성이 있는데 번역에 따라 그 난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답률 차와는 관련이 없지만, 제도상의 차이로 번역 과정에서 고심이 많았던 문항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준으로 선정한 분석 대상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문항

문항 추출 기준		문항	문항 수
기준 1	정답률의 차가 30%p 이상인 문항	13, 17*, 20, 37, 42*	5
기준 2	정답률이 80% 이상 높은 문항	16, 17*, 45	3
기준 3	정답률이 오답지 응답률보다 낮은 문항	6, 12, 18, 25*, 42*, 43*	6
기준 4	제도상의 차이가 있는 문항	25*, 29, 43*	3
소계		-	13

주 1) *는 중복 문항을 의미하며 문항 수는 중복을 제외하여 계산한 것임.

2) 42번은 미국의 정답률이 한국의 정답률보다 높은 문항임.

III. 문항의 타당성 검토

1. 문항 분석

1) 수입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수입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분석 대상은 기준 3에 의해 선정된 6번 문항이다.

6번 문항은 정답률이 다른 선택지의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항에서 미국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번역한 것이 번역상의 편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 학생은 미국 학생에 비해 국민연금의 재원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그 재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고

용주(40.2%)보다는 과거에 일했던 자신과 고용주(42.2%)가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입 범주 문항의 정답률 비교

구분		A		B		C		D		소계		
범주	문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입	1	한국	57	5.7	48	4.8	344	34.2	557	55.4	1,006	100.0
		미국	281	23.1	66	5.4	121	9.9	750	61.6	1,218	100.0
	2	한국	54	5.4	337	33.5	447	44.4	168	16.7	1,006	100.0
		미국	66	5.4	365	30.0	444	36.5	343	28.2	1,218	100.0
	3	한국	179	17.8	513	51.0	143	14.2	171	17.0	1,006	100.0
		미국	250	20.5	675	55.4	157	12.9	136	11.2	1,218	100.0
	4	한국	790	78.5	70	7.0	98	9.7	48	4.8	1,006	100.0
		미국	786	64.5	151	12.4	160	13.1	121	9.9	1,218	100.0
	5	한국	612	60.8	198	19.7	97	9.6	99	9.8	1,006	100.0
		미국	505	41.5	170	14.0	214	17.6	329	27.0	1,218	100.0
	6	한국	404	40.2	425	42.2	86	8.5	91	9.0	1,006	100.0
		미국	728	59.8	225	18.5	134	11.0	131	10.8	1,218	100.0
	7	한국	168	16.7	664	66.0	138	13.7	36	3.6	1,006	100.0
		미국	368	30.2	489	40.1	196	16.1	165	13.5	1,218	100.0

주 1) 진한 글씨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선택지를 의미함.

2) 음영은 정답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의미함.

6. Most of the payments to Social Security recipients come from which source?

- A. taxes paid by people currently working and their employers
- B. taxes paid by recipients and their employers when they were working
- C.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funded by current workers and their employers
- D.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funded by recipients and their employers when they were working

6.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고 있는 연금의 주된 재원은?

- A.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그 고용주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 B. 값이 과거에 직장을 다니는 동안 자신과 그 고용주가 납부했던 국민연금
- C.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그 고용주가 납부하는 퇴직연금
- D. 값이 과거에 직장을 다니는 동안 자신과 그 고용주가 납부했던 퇴직연금

2) 구매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구매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분석 대상은 기준 1에 의해 선정된 13번 문항과 기준 3에 의해 선정된 12번 문항이다.

<표 5> 구매 범주 문항의 정답률 비교

구분		A		B		C		D		소계		
범주	문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구매	8	한국	211	21.0	93	9.2	544	54.1	158	15.7	1,006	100.0
		미국	185	15.2	42	3.4	746	61.2	245	20.1	1,218	100.0
	9	한국	96	9.5	63	6.3	822	81.7	25	2.5	1,006	100.0
		미국	74	6.1	94	7.7	1,013	83.2	37	3.0	1,218	100.0
	10	한국	30	3.0	114	11.3	613	60.9	249	24.8	1,006	100.0
		미국	93	7.6	333	27.3	462	37.9	330	27.1	1,218	100.0
	11	한국	39	3.9	763	75.8	59	5.9	145	14.4	1,006	100.0
		미국	69	5.7	997	81.9	89	7.3	63	5.2	1,218	100.0
	12	한국	50	5.0	114	11.3	497	49.4	345	34.3	1,006	100.0
		미국	130	10.7	172	14.1	419	34.4	497	40.8	1,218	100.0
	13	한국	169	16.8	40	4.0	781	77.6	16	1.6	1,006	100.0
		미국	415	34.1	175	14.4	483	39.7	145	11.9	1,218	100.0

주: <표 4>와 같음.

13번 문항은 기준 1과 같이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보다 30%p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항에서 미국의 “lemon laws”를 직역하면 “레몬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찾아 “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법”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번역상의 편이가 발생한 것이다. “레몬법”에는 ‘교환’과 같은 단서가 없는 반면 “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법”에는 ‘교환’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어 정답지인 ‘불량 제품’과의 관련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정답률이 77.6%로 미국의 39.7%에 비해 37.9%p 높아지게 되었다.

13. Most states have “lemon laws.” These laws protect buyers from
- A. false advertising.
 - B. credit card fraud.

C. defective products.

D. contaminated produce.

13. “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관한 법”은 소비자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가?

A. 허위 광고

B. 신용카드 사기

C. 불량 제품

D. 오염된 제품

12번 문항은 기준 3과 같이 정답률이 다른 선택지의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항은 번역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싼 제품을 살 때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를 “시간을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싼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의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더 많아 정답률은 34.3%로 낮게 나타났다.

12. When Desmond buys an expensive product he spends time getting information about it. But when he buys an inexpensive product he spends little time getting information on it. Which of the following best explains his economic decision about gathering product information?

A. The benefits of getting information on the expensive product are low.

B. The benefits of getting information on the inexpensive product are high.

C. The benefits of getting information on the inexpensive product are less than the costs.

D. The benefits of getting information on the expensive product are greater than the costs.

12. 값은 비싼 제품을 살 때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만 싼 제품을 살 때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의사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A. 비싼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의 편익이 작다.

- B.싼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의 편익이 크다.
- C.싼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의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
- D.비싼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3) 저축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저축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분석 대상은 기준 1에 의해 선정된 17번 문항, 기준 2에 의해 선정된 16번과 17번 문항, 기준 3에 의해 선정된 18번 문항이다. 이 중 17번 문항은 기준 1과 기준 2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6> 저축 범주 문항의 정답률 비교

구분		A		B		C		D		소계		
범주	문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저축	14	한국	111	11.0	25	2.5	275	27.3	595	59.1	1,006	100.0
		미국	183	15.0	83	6.8	299	24.5	653	53.6	1,218	100.0
	15	한국	363	36.1	98	9.7	76	7.6	469	46.6	1,006	100.0
		미국	190	15.6	247	20.3	137	11.2	644	52.9	1,218	100.0
	16	한국	124	12.3	804	79.9	54	5.4	24	2.4	1,006	100.0
		미국	159	13.1	820	67.3	164	13.5	75	6.2	1,218	100.0
	17	한국	65	6.5	834	82.9	70	7.0	37	3.7	1,006	100.0
		미국	331	27.2	573	47.0	160	13.1	154	12.6	1,218	100.0
	18	한국	387	38.5	49	4.9	164	16.3	406	40.4	1,006	100.0
		미국	398	32.7	178	14.6	407	33.4	235	19.3	1,218	100.0

주: <표 4>와 같음.

17번 문항은 기준 1과 같이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보다 30%p 이상 높게 나타나고, 기준 2와 같이 정답률이 80% 이상 높은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미국의 IRA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어로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IRA가 어떤 용어의 약어인지를 알아야만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어떤 용어의 약어인지를 알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어에 ‘퇴직’이 포함되어 있어 ‘은퇴에 대비’한다는 정답지와 관련성을 쉽게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정답률이 82.9%로 미국의 47.0%에 비해 35.9%p 높아지게 되었다.

17. What is the primary purpose of an IRA?
- A. allows workers to pay taxes with each pay check
 - B. provides incentives for people to save for retirement**
 - C. eliminates the need for savers to collect Social Security
 - D. creates savings accounts for current health-care expenses

17. 개인형 퇴직연금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A.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한다.
 - B. 사람들이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할 유인을 제공한다.**
 - C.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 D. 현재의 건강관리 비용을 위해 예금계좌를 개설한다.

16번 문항은 기준 2와 같이 정답률이 80%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³⁾ 이 문항에서는 이 문항에서는 정답지에 포함된 미국의 FDIC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FDIC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약어로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편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FDIC가 어떤 용어의 약어인지를 알아야만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상응하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어떤 용어의 약어인지를 알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어에 ‘예금자보호’가 포함되어 있어 문항에서 요구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정답률이 79.9%로 미국의 67.3%에 비해 12.6%p 높아지게 되었다.

16. Noah has \$15,000 in his savings account at the major bank in his city. Which of the following best explains why Noah feels his money is safe?
- A. The bank pays interest on his savings account.
 - B. Noah's savings account at the bank is FDIC-insured.**
 - C. The bank offers investment services in addition to savings accounts.

3) 16번 문항의 경우 정답률이 79.9%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기준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올림 값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D. Noah has both a checking account and a savings account at the bank.

16. 갑은 1,500만 원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갑이 자신의 예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A. 은행이 갑의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 B. 갑의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 C. 은행이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 D. 갑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18번 문항은 기준 3과 같이 정답률이 다른 선택지의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항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정답률이 다른 선택지의 응답률보다 낮았다. 이 문항에서 미국의 401(k) 플랜(plan)을 국민연금으로 번역한 것이 번역상의 편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연금은 고용주가 일부를 납입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이 있지만,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은퇴 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된다(33.4%)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한국의 경우 “정부가 연금에 대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한다.”(40.4%)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18.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dvantage of a 401(k) retirement plan over a private savings plan that a worker establishes for retirement?

- A. Employers may contribute to a 401(k) plan.**
- B. An unlimited amount can be contributed to a 401(k) plan.
- C. The money withdrawn from a 401(k) plan at retirement is not taxed.
- D. The government guarantees a minimum rate of return on a 401(k) plan.

18. 은퇴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 예금에 비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이점은?

- A. 회사가 연금의 일부를 납입한다.**
- B. 액수에 제한 없이 납입할 수 있다.
- C. 퇴직 후 연금을 찾을 때 세금이 면제된다.
- D. 정부가 연금에 대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한다.

4) 신용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신용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분석 대상은 기준 1에 의해 선정된 20번 문항과 기준 3과 기준 4에 의해 선정된 25번 문항이다.

<표 7> 신용 범주 문항의 정답률 비교

구분		A		B		C		D		소계		
범주	문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신용	19	한국	65	6.5	456	45.3	150	14.9	335	33.3	1,006	100.0
		미국	254	20.9	637	52.3	127	10.4	200	16.4	1,218	100.0
	20	한국	43	4.3	762	75.7	46	4.6	155	15.4	1,006	100.0
		미국	241	19.8	554	45.5	230	18.9	193	15.8	1,218	100.0
	21	한국	45	4.5	156	15.5	187	18.6	618	61.4	1,006	100.0
		미국	172	14.1	251	20.6	283	23.2	512	42.0	1,218	100.0
	22	한국	148	14.7	160	15.9	161	16.0	537	53.4	1,006	100.0
		미국	242	19.9	251	20.6	165	13.5	560	46.0	1,218	100.0
	23	한국	8	0.8	88	8.7	186	18.5	724	72.0	1,006	100.0
		미국	61	5.0	70	5.7	130	10.7	957	78.6	1,218	100.0
	24	한국	448	44.5	154	15.3	93	9.2	311	30.9	1,006	100.0
		미국	735	60.3	166	13.6	126	10.3	191	15.7	1,218	100.0
	25	한국	78	7.8	406	40.4	134	13.3	388	38.6	1,006	100.0
		미국	196	16.1	238	19.5	115	9.4	669	54.9	1,218	100.0
	26	한국	76	7.6	601	59.7	144	14.3	185	18.4	1,006	100.0
		미국	113	9.3	671	55.1	170	14.0	264	21.7	1,218	100.0
	27	한국	628	62.4	105	10.4	132	13.1	141	14.0	1,006	100.0
		미국	511	42.0	311	25.5	182	14.9	214	17.6	1,218	100.0
	28	한국	220	21.9	156	15.5	113	11.2	517	51.4	1,006	100.0
		미국	400	32.8	155	12.7	151	12.4	512	42.0	1,218	100.0

주: <표 4>와 같음.

20번 문항은 기준 1과 같이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에 비해 30%p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항에서 미국의 ‘collateral’을 ‘담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

에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문항을 풀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보’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정답률이 75.7%로 미국의 45.5%에 비해 30.2%p 높아지게 되었다.

20. Collateral for a loan is
- A. the fee charged for not repaying the loan.
 - B. property the bank can sell if the loan is not repaid.**
 - C. the amount in damages the bank is due for a late payment.
 - D. the contract the bank holds in its vault until the loan is repaid.

20. 대출 담보란?
- A.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 B.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은행이 팔 수 있는 재산**
 - C. 연체되었을 때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액
 - D.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은행이 금고에 보관하는 계약서

25번 문항은 기준 3과 같이 정답률이 다른 선택지의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기준 4와 같이 금융 관련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신용 상담 서비스 기관의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고심이 많았던 문항이다. 영어 문항의 선택지 B를 직역하면 “파산 신청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인데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면 오답지가 정답이 된다. 이에 따라 선택지 B를 “파산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한다.”, “파산 신청에 대한 파산 여부를 신고한다.” 등으로 번역한 후 연구자들의 교차 검토를 거쳐 전자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변형이 번역상의 편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 신용 상담 서비스 기관의 업무로 ‘채권자들과 상환 일정을 협상’(38.6%)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보다 “파산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한다.”(40.4%)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25. Credit counseling services will do which of the following for consumers with credit problems?
- A. help them apply for a credit card

- B. provide legal help to file bankruptcy
- C. represent them in court against creditors
- D. negotiate payment schedules with creditors**

25. 신용 상담 서비스 기관이 신용에 문제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 A. 신용카드 신청을 도와준다.
- B. 파산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한다.
- C. 채권자와의 법적 소송에서 소비자들을 대변한다.
- D. 채권자들과 상환 일정을 협상한다.**

5) 금융 투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금융 투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분석 대상은 기준 4에 의해 선정된 29번 문항이다.

<표 8> 금융 투자 범주 문항의 정답률 비교

구분		A		B		C		D		소계		
범주	문항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금융 투자	29	한국	97	9.6	107	10.6	651	64.7	151	15.0	1,006	100.0
		미국	144	11.8	208	17.1	599	49.2	267	21.9	1,218	100.0
	30	한국	450	44.7	225	22.4	211	21.0	120	11.9	1,006	100.0
		미국	497	40.8	303	24.9	259	21.3	159	13.1	1,218	100.0
	31	한국	486	48.3	203	20.2	205	20.4	112	11.1	1,006	100.0
		미국	410	33.7	460	37.8	233	19.1	115	9.4	1,218	100.0
	32	한국	196	19.5	102	10.1	660	65.6	48	4.8	1,006	100.0
		미국	150	12.3	184	15.1	777	63.8	107	8.8	1,218	100.0
	33	한국	29	2.9	769	76.4	81	8.1	127	12.6	1,006	100.0
		미국	185	15.2	687	56.4	170	14.0	176	14.4	1,218	100.0
	34	한국	157	15.6	337	33.5	192	19.1	320	31.8	1,006	100.0
		미국	228	18.7	372	30.5	324	26.6	294	24.1	1,218	100.0
	35	한국	92	9.1	355	35.3	497	49.4	62	6.2	1,006	100.0
		미국	215	17.7	372	30.5	468	38.4	163	13.4	1,218	100.0
	36	한국	53	5.3	204	20.3	145	14.4	604	60.0	1,006	100.0
		미국	151	12.4	353	29.0	229	18.8	485	39.8	1,218	100.0

주: <표 4>와 같음.

29번 문항은 기준 4와 같이 금융 관련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문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한국과 미국의 금융 세제가 달라 선택지를 구성하는 데 고심이 많았다. 선택지 A를 직역하면 “주식 투자에서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오답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정답이 되기 때문이다.⁴⁾ 이에 따라 한국어 문항의 경우에는 선택지 A를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에 대해 세액이 공제된다.”로 수정하여 오답이 되도록 하였다.

29.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taxes on financial investments is correct?

- A. Investors pay no taxes on capital gains from stock investments.
- B. Investors pay no taxes on interest earned from bond investments.
- C. Tax rates on financial investments will vary by the type of investment.**
- D. Tax rates are higher for high-risk investments than they are for low-risk investments.

29. 금융 투자에 따른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에 대해 세액이 공제된다.
- B. 채권 투자에서 얻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 C. 금융 투자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D. 저위험 투자에 비해 고위험 투자에 대한 세율이 높다.

6) 보험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보험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중에서 분석 대상은 기준 1에 의해 선정된 37번과 42번 문항, 기준 2에 의해 선정된 45번 문항, 기준 3에 의해 선정된 42번과 43번 문항, 기준 4에 의해 선정된 43번 문항이다. 이 중 42번 문항은 기준 1과 기준 3에, 43번 문항은 기준 3과 기준 4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였다.

4) 2022년 현재 한국은 ‘개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7번 문항은 기준 1과 같이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보다 30%p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항은 제도에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직역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상의 편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답률이 69.5%로 미국 35.7%에 비해 3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과 관련한 기회비용에 대한 한국 학생의 이해력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Paul paid for auto insurance every year but never had an accident or filed a claim. Did he get anything of value for the money he paid?
- A. No, because the insurance company never had to pay a claim.
 - B. No, because he protected himself and his car by being a careful driver.
 - C. Yes, because the insurance company was paid to assume his accident risk.**
 - D. Yes, because the insurance company paid his interest on the premiums he paid.

<표 9> 보험 범주 문항의 정답률 비교

범주	구분 문항	A		B		C		D		소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보험	37	한국	70	7.0	142	14.1	699	69.5	95	9.4	1,006	100.0
		미국	289	23.7	235	19.3	435	35.7	259	21.3	1,218	100.0
	38	한국	49	4.9	765	76.0	102	10.1	90	8.9	1,006	100.0
		미국	151	12.4	771	63.3	169	13.9	127	10.4	1,218	100.0
	39	한국	58	5.8	128	12.7	709	70.5	111	11.0	1,006	100.0
		미국	360	29.6	218	17.9	506	41.5	134	11.0	1,218	100.0
	40	한국	403	40.1	274	27.2	133	13.2	196	19.5	1,006	100.0
		미국	658	54.0	232	19.0	156	12.8	172	14.1	1,218	100.0
	41	한국	534	53.1	219	21.8	126	12.5	127	12.6	1,006	100.0
		미국	431	35.4	289	23.7	245	20.1	253	20.8	1,218	100.0
	42	한국	119	11.8	112	11.1	236	23.5	539	53.6	1,006	100.0
		미국	130	10.7	164	13.5	763	62.6	161	13.2	1,218	100.0
	43	한국	68	6.8	538	53.5	306	30.4	94	9.3	1,006	100.0
		미국	415	34.1	291	23.9	441	36.2	71	5.8	1,218	100.0
	44	한국	153	15.2	488	48.5	155	15.4	210	20.9	1,006	100.0
		미국	318	26.1	590	48.4	152	12.5	158	13.0	1,218	100.0
	45	한국	21	2.1	62	6.2	83	8.3	840	83.5	1,006	100.0
		미국	142	11.7	132	10.8	236	19.4	708	58.1	1,218	100.0

주: <표 4>와 같음.

37. 갑은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한 번도 사고를 내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갑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
- A. 보험회사가 한 번도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치가 없었다.
 - B. 갑이 주의 깊은 운전자로서 자신과 자동차를 보호했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치가 없었다.
 - C. 사고 위험을 가정했으므로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가치가 있었다.**
 - D.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사가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가치가 있었다.

42번 문항은 기준 1과 같이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보다 30%p 이상 낮게 나타나고, 기준 3과 같이 정답률이 다른 선택지의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 문항은 한국의 정답률이 미국보다 유일하게 30%p 이상 낮게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이 문항은 뇌졸중과 같은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묻고 있다. 미국 문항의 선택지인 ‘disability insurance’를 장애 보험으로 번역한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 장애 보험보다는 실손 보험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편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에는 장애 보험(23.5%)보다는 실업 보험(53.6%)을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 그만큼 번역상의 편이가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정답률이 23.5%로 미국의 62.6%에 비해 39.1%p 낮아지게 되었다.

42. Maria had a stroke and cannot work at her job as an accountant for at least a year. Which type of insurance would replace her income while she cannot work?
- A. life insurance
 - B. liability insurance
 - C. disability insurance**
 - D. unemployment insurance
42. 갑은 뇌졸중을 앓아 최소한 1년 동안 자신의 직업인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은?
- A. 생명 보험
 - B. 책임 보험

C. 장해 보험

D. 실업 보험

45번 문항은 기준 2와 같이 정답률이 8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직역하면 ‘근로자 보상’ 보험이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보험이 없으므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산업재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 중에 다친’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답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정답률이 83.5%로 미국의 58.1%에 비해 25.4%p 높아지게 되었다.

45. Workers’ compensation is an insurance program for workers

- A. after they retire.
- B. who have low incomes.
- C. after they lose their jobs.
- D. who have been hurt on the job.**

45.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A. 은퇴한 근로자를 위한 보험
- B.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
- C. 직업을 상실한 근로자를 위한 보험
- D. 작업 중 다친 근로자를 위한 보험**

43번 문항은 기준 3과 같이 정답률이 다른 선택지의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기준 4와 같이 금융 관련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문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보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 도로에서 튕 돌에 의해 유리가 파손된 경우 ‘collision insurance’가 아니라 ‘comprehensive’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collision insurance’는 충돌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를 직역하면 ‘충돌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다. 이에 따라 문항의 추지를 살리기 위해 ‘충돌에 대한 자차 보험’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번역상의 편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에서 튕 돌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 보험은 자차 보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합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지를 ‘충돌에 대한 자차 보험’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답에는 이상이 없지만 ‘자차 보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혼선을 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튼 돌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경우 사고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비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험 처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종합 보험’(30.4%)보다는 ‘충돌에 대한 자차 보험’(53.5%)을 정답으로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

43. Which type of auto insurance would pay for the repair of a cracked windshield caused by a rock hitting it?
- A. liability
 - B. collision
 - C. comprehensive**
 - D. uninsured motorist

43. 다음 중 돌이 튀어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 A. 책임 보험
 - B. 충돌에 대한 자차 보험
 - C. 종합 보험**
 - D. 무보험자 배상

2.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10>과 같이 분석 대상인 13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에서 번역에 따른 편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중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용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6개의 문항이었다.

5) 문항 수는 중복을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표 10> 분석 대상 문항의 번역 편이 분류

문항 추출 기준	용어			제도	문제 없음
	약어	단서	친숙도		
기준 1	정답률의 차가 30%p 이상인 문항	17*	13	20, 42*	37
기준 2	정답률이 80% 이상 높은 문항	16, 17*	45		
기준 3	정답률이 오답지 응답률보다 낮은 문항			42*	25*, 43*
기준 4	제도상의 차이가 있는 문항				25*, 29, 43*
문항 수		2	2	2	3

주: <표 3>과 같음.

이들 문항은 영어 약어로 표현된 것을 번역한 결과 불가피하게 정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2개 문항, 약어는 아니지만, 제도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한 결과로 역시 정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2개 문항, 용어의 친숙도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2개 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국 제도의 차이에 따라 번역에 주의가 필요한 3개 문항이 있는데, 이들 문항의 경우에는 기준 1과 기준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즉, 번역 과정에서 주의한다면, 양국 제도의 차이로 인한 정답률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상의 문제가 없는 문항은 4개 문항이 있었다. 이 중 3개 문항도 기준 1과 기준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으며, 정답률 차가 컸던 37번 문항도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력 차이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서 번역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이해력 국제 비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번역 편이는 제도상의 차이보다는 용어의 선정, 특히 약어를 풀어쓰거나 각국의 제도에 해당하는 용어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금융 이해력의 국제 비교를 위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번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Hahn & Jang(2012)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

학생의 금융 이해력을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정답률의 차가 큰 문항, 정답률이 매우 높은 문항, 정답률이 오답지의 응답률보다 낮은 문항, 정답률 차는 작지만 제도상의 차이로 번역 과정에서 고심이 많았던 문항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문항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13개 문항 중 9개의 문항에서 번역 편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용어와 제도의 차이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번역 편이는 대부분 용어 선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약어로 표현된 것을 번역하거나 제도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번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금융 이해력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번역 편이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문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차이가 있는 한 해소하기 어려운 범주에 속한다. 반면 제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상적인 용어로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제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답률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와 같은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도 차이에 따른 번역 편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 이해력 국제 비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금융 이해력 문항을 개발하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국제 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개발된 금융 이해력 문항을 번역하여 국제 비교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약어가 포함되거나 고유명사가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문항에 번역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금융 이해력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경호(2021),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태도 분석, *경제교육연구*, 28(2), 85-103.
- 한진수·장경호(2022),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 이해력 결정 요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54(2), 69-88.
- Hahn, J. and K. Jang (2012), The Effects of a Translation Bias on the Scores for the Basic Economics Test,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3(2), 133-148.
- Happ, R., J. Hahn, K. Jang, and I. Rüter (2022), Financial Knowledg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Germany,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17(2), 301-327.
- Kraitzek, A, M. Förster, and W. B. Walstad (2022), Comparison of financial education and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Curriculum and assessment,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17(2), 153-173.
- Walstad, W. B. and K. Rebeck (2016), Test of Financial Literacy: Examiner's Manual, manuscript.
- _____ (2017), The Test of Financial Literacy: Development and Measurement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48(2), 113-122.
- _____, and R. B. Butters (2010), *Basic economics test: Examiner's manual*, 3rd ed., New York: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Abstract>

An Analysis on the Translation Bia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Literacy*

Kyungho Jang** · Jinsoo Hahn***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oints to be not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by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test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literacy.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item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terms and systems, we found that most of the translation bias was caused by the problem of term selection. In particular, there was a tendency to inevitably provide clues to the correct answer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those English abbreviations or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when different systems were translated in each country's everyday term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hese results implies that i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al comprehension, item developers should avoid using the terms that contain abbreviations or proper nouns, while researchers who want to conduct international comparisons should be very careful when comparing financial literacy for questions that use those terms.

Key words: Financial literacy, Translation bias, TFL, Economic education

원고접수: 2022년 07월 26일 심사일: 2022년 07월 26일 ~ 2022년 08월 13일
게재확정: 2022년 08월 13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This work is a part of revis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via online at the regular academic conference of the Japanese Society of Economic Education held at Jissen Women's University in March 7, 2021. This paper has benefitted from many valuable comments by three anonymous referees. I am completely responsible for any remaining errors and deficiencies.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kjang@inha.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shahn@ginue.ac.kr).